

9/5/21

설교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14 장 1-31 절

(출 1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14:2)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므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출 14:3)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바 되었다 할지라

(출 14:4)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출 14:5) 흑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출 14:6)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출 14:7) 특별 병거 육백 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출 14:8)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출 14:9)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 데 미치니라

(출 14:10) 바로가 가까와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 14: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출 14: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 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출 14: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 14: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출 14: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출 14:17)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출 14:18)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출 14:19)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출 14: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출 14: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 14: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출 14:23)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출 14: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 14:25)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출 14: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출 14:27)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출 14:28)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출 14:2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출 14:30)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출 14:31)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설상가상 애굽 바로의 군사가 뒤쫓아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앞으로 전진하지도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다 건너자 바다물을 다시 흐르게 해서 뒤쫓아 오던 바로의 군사들을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그리고 온 천하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궁극적으로 당신이 영광을 얻으시기 원하셨습니다.

(출 14:4)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출 14:18)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이 영광을 얻는데 있습니다.

구속 사역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진로를 바꾸라고 명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십니다.

(출 1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14:2)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므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쾌재를 부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 갇혀 독 안에 든 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출 14:3)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바 되었다 할지라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어떤 생각을 품을지 미리 아시고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전략을 짜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분히 여기고 추격해 올 것을 이미 아셨으나 막지 않고 그가 하는대로 내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뒤쫓아 오는 바로의 군대를 못 쫓아오도록 당장 막아 주거나 쳐부셔 주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방향을 바꾸게 해서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가 막강한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쫓습니다.

(출 14:6)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출 14:7) 특별 병거 육백 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출 14:8)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출 14:9)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 데 미치니라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탓입니다.

(출 14:10) 바로가 가까와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 14: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출 14: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와 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저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면 환란을 당하게 될 때 염려하고 낙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성도들은 환란을 당할 때마다 이 홍해 사건을 상기하면서 힘을 얻어섭니다.

둘째,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 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출 14: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여야 합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당신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직면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당신이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언급합니다.

(고후 1: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고후 1:9)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전략을 말씀해 주시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이 일로 당신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출 14: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출 14: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출 14:17)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출 14:18)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리고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위치를 이스라엘 뒤로 옮깁니다.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입니다.

(출 14:19)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출 14: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바로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서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은 구약 시대부터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 십자가 사건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출 14: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 14: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출 14:23)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출 14: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 14:25)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출 14: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출 14:27)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출 14:28)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출 14:2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출 14:30)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 일을 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습니다.

(출 14:31)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염려하고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의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높은 법입니다.

고난 중에 나타내는 영광은 더욱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순교를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딤후 1:12)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 얼마나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